

문화포럼



부안군 드림스타트

관내 문화유적지 역사탐방

부안군 주민행복지원실 드림스타트는 지난 5일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 3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문화유적지 역사탐방 프로그램 '우리지역 역사탐방 드림탐합대 출동'을 진행했다.

'부안의 역사문화를 찾아서'이라는 주제로 펼쳐진 문화유적지 역사탐방은 역사문화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동문안 서문안, 구암리 지석묘, 청자박물관, 출포단 갯벌생태공원 등을 돌아보고 탐방지에 대한 역사적 의의 및 가치 등을 이해하고 탐방일지를 작성해봄으로써 자기주도 학습의 장을 마련했다.

드림스타트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내 고장의 사적지를 직접 방문하고 특히 부안 고려청자의 역사, 제작과정 등을 눈으로 보고 만져보면서 지역의 문화유산의 소중한 인식과 선조들의 뛰어난 예술성 확인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교월동, 전 지역 방역활동

연일 계속되는 찌는 듯한 무더위로 인해 그 어느해보다도 여름철 감염성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제시 교월동에서는 지난 6월부터 운영중인 '물리&세이프 깨끗하고 안전한' 교월동 지키기 방역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여 인구밀집지역 및 축사·하수구 등의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온다습한 날이 많아짐에 따라 땀기열 및 지카바이러스 매개충인 모기도 극성을 보이고 있어 통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별 자율방역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며 '교월동을 사랑하는 모임' 내 청년 방역단의 방역활동도 보다 강화하고 있다.

특히 주변 환경이 취약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병해충에 노출되지 않도록 복지담당 공무원과 연계하여 병해충 구제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더위를 피해 경로당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 경로당 및 그룹홈 위생을 위한 방역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에 김포씨(임석동 73세)는 "요즘같은 무더위에 그나마 에어컨이 나오는 마을 경로당에 많은 주민들이 모여 있어서 위생에 걱정이 많았는데 주 1회 정도 실시되는 방역에 안심이 되곤 한다"며 "무더위에 고생하는 방역단체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군자원봉사센터 청소년들
변산반도 환경정화 활동 나서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옥순) '배우는 봉사 나누는 기쁨' 청소년봉사단은 지난 6일 변산반도국립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20여명의 청소년들은 부안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탐방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부유물 등을 수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환경정화 활동 후에는 청자박물관에서 청자만들기 체험학습을 통해 우리민족의 귀중한 유산인 고려청자의 역사와 전통을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다.

'배우는 봉사 나누는 기쁨' 청소년봉사단은 (사)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기원) 시·군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진행되고 있다.

4월에는 리본공예를 통한 카네이션 만들기, 5월에는 마실축제 지원봉사, 6월에는 비즈공예로 팔찌 만들기, 7월에는 법친공예를 이용한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부안=이옥수 기자

폭염에 발작물 수확량 감소 우려

김제시농기센터, 발작물서 수분부족에 의한 병해충 발생 사례 늘어 주의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과 내리지 않는 비로 인해 일부 발작물에서 수분부족에 의한 수확량 감소 우려가 높아지고 병해충 발생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우선 벼의 경우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흰잎마름병, 흑점나방, 멸구류 등 병해충에 대한 예찰을 통해 방제를 실시하고 관개용수가 충분할 때에는 물 흘려대기로 수온 상승을 억제하고 가리질비료를 충분하게 사용해야 한다.

노지채소는 짚, 풀 퇴비 등을 이랑에 덮어 토양 수분 증발을 억제하면서, 필요 시 이동식 스프링클러 등을 가동해 부족한 토양 수분을 유지시켜야 하며, 특히 일시에 많은 물을 한번

에 관수하면 질소와 칼리 흡수가 급격하게 늘어나 석회 흡수를 저해시켜 석회결핍등의 장애를 유발하므로 조금씩 자주 물을 주는 것이 좋으며 또한 고온 및 가뭄에 의한 고추 석회결핍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칼슘제(염화칼슘 0.3~0.5%)를 7~10일 간격으로 엽면시비를 해야 한다.

시설원예는 환기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고온이 계속될 경우 환기팬을 가동하고, 한낮 차광으로 안전작과를 유도해 주고, 병에 걸린 식물체는 조기에 제거해 전염원을 차단하고 질소비료를 알맞게 줘 줄기가 굵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준다.

과실에 강한 햇볕이 직접 닿을 경우에는 탄산칼슘, 카울린을 과실 보호를 위해 2~3회 뿌려주고 미세살수 장치

로 온도를 낮춰 준다.

또한 고온 시 진딧물, 응애류 등 해충 발생이 증가하므로 해충방제에도 중점 노력해야 한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철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최근 폭염이 계속되며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농작물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한편 도열병, 노린재, 총재벌레 등 고온성 병해충 발생에 대비, 시판내에 10여개의 병해충 관찰포를 설치 운영하며 정밀 예찰을 통해 적기방제 및 농작물 관리 기술 지도를 펼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보건소는 지역아동센터 29개소 77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순회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읍시보건소, 취약계층 아동들 건강관리 적극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정읍시보건소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취약계층 아동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나섰다.

보건소는 "여름방학을 맞아 저소득층과 조손가족,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능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지역아동센터

29개소 77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순회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치과의사와 간호사, 치과위생사, 영양사로 운영반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는 체성분 검사와 빈혈 등 건강검진과 함께 흡연예방을 위한 금연교육에서부터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위한 영양교육, 건강한 치아관리를 위한 구강보건교육 등 다양한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있다.

또 바른 잇솔질과 불소도포, 치아홈

메우기, 스켈링과 기생충 질환 예방을 위한 구충제 투약 및 머릿니 제거 등 개인위생 관리 요령도 지도하는 등 아동들의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적극적 나서고 있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아동들의 건강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유한식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섬진제 급수현황 청취 위해 전북 방문

유한식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는 지난 4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섬진제 급수현황 청취를 위해 전북지역을 방문하였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과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유 상임감사는 김제관역(참샘) 사업현장 사업비 규모가 전북관내에서 제일 큰 45억원인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사업으로 2013년 6월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학원)에서 위탁시행을 하여 2014년 8월 준공되었고 작물 생육환경 개선으로 인한 품질 및 생산량 증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을 청취한 뒤 공사에서 해당사업을 적극 수주하여 국가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유 감사는 지속되는 마른장마와 기상청 장기예보에서 8월 중순까지 국지적인 소나기 외에 충분한 강우가 기대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부지역에서 농업용수공급에 애로가 예상됨에 따라 섬진제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김인수 동진지사장은 섬진제의 경우 물에 상관이 적절할 강우로 인하여 현재 저수량은 191백만톤으로 평년대비 1.5%가 많고, 9월30일까지는 영농급수에 차질 없다는 설명과 지금 분담기 물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국지적인 가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용수 절약과 저수율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감사는 일선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분담기 안전영농 급수와 용수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 폭염 속 가뭄에
도로화단 가로수 물주기

폭염과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주로 도로변 화단과 가로수 물주기에 나섰다.

시는 "최근 한 달여 동안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면서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는 화단과 다리 난간에 식재된 꽃과 꽃박스 그리고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를 위해 앞으로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물주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산불진화 차량과 꽃 식재 차량 6대(16명)를 동원하여 지속적인 급수작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한 정읍 천변 자연가도도 단풍경관림과 정읍천 다리난간 꽃 화분 7개소에 접적관수 시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급수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폭염에 지친 가로수의 푸르름과 화단 꽃들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뭄으로 인한 수목 고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주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현혈은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읍시청 광장에서 있었고,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에서 적극 참여했다.

정읍 공무원·시민 현혈 '함께'

정읍시청 광장에서 단체 현혈 실시

정읍시가 국내 전체 현혈자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학생들의 방학으로 현혈 참여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단체 현혈을 통한 사람의 온도 높이기에 나섰다.

보건소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과 함께 매년 새로운 질병이 출현하는 등의 영향으로 현혈금지 지역과 혈액 안전성 강화로 현혈금지 대상자가 증가되고 있는데다 방학으로 현혈인구가 줄었다"며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해 단체현혈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혈은 지난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읍시청 광장에서 있었고, 공무원과 유관기관, 단체 등에서 적극 참여했다.

한편 시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연 2회 단체현혈과 현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매주 2회(월, 수요일)에 시민들이 현혈 봉사 할 수 있는 '정읍현혈의 공간'도 마련했다.

또 현혈자에게는 혈액형과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검사, 간기능 검사 등 7종의 검진서비스와 1,750만원(3,500명분)의 예산을 확보하여 문화상품권(5,000원) 또는 재래시장 상품권(5,000원)을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혈운동은 이웃사랑의 가장 확실한 실천이자 나라사랑의 지름길이다"며 "우리 모두가 현혈을 통한 나눔 문화에 동참함으로써 공직자 현혈운동에만 국한되지 않고 방국민적 현혈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농어촌공 부안지사 부채농가 경영회생

한국 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김병수·사진)는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도우려고 발 벗고 나섰다.

이를 위해 부안지사는 올 사업비 39억 원을 확보하여 경영회생에 나서 연중 접수 지원하고 있어 농업인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부채금액이 3천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 기간 농업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이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물이며, 감정평가금액(6만 원/㎡ 이하)으로 매입하게 되며, 매입한 농지는 다시 해당 농가에 7년 간(최장 10년) 농지 매도가격의 1% 이내



의 임차료만 받고 임차해 계속 영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임대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환매 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농어촌공사 부안지사 농지은행(580-1011)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는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해 2016 김제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김제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연수 실시

김제시는 지난 5일 주민자치센터의 지역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해 2016 김제시 주민자치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김제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담당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세계조롱박축제(2016.07.29~08.21)가 열리는 충남 청양군 정산면 알프스마을에 마을소가와 마을기업성공사례를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알프스마을 대표로부터 주민자

치센터 운영현황과 대표적 우수사례(얼음분수축제, 세계조롱박축제, 칠갑산공룡제 등)청취와 현장방문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공동체 자생능력 배양과 다양한 사업을 접하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소성영 민정읍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긍정적 사고와 개척적 자세로 주민과 행정간 교류역할을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자로서 적극적인 의식전환이 필요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